독자기고 현 사회 변혁운동을 진단한다

"자유를 향한 변혁은 멈춤이 없다"

사회변혁운동의 의의

과학적 입장에서 역사와 사회를 논하는 사람들에게 혹은 연구자에게 현시적 우리 사회 변혁은 무엇을 의미하며 이것의 대안은 무엇인가? 라고 식 점적으로 질문한다면 오늘날 무척 곤란한 질문이 되어버릴 것이다. 만할수 있는 대안이라는 것이 이제는 검증되지 않은 하나의 관념이나 신념체계로서 몰락해 버렸기 때문이다. 이것은 또한 혁명적 학생운동의 위기, 탈스-레닌주의의 위기로 현상화 되기에 이르렀다. 80년대의 군부독재 지배하에 수수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진정한 민주주의에에 대한 질문으로 제기되던 때의 변혁적 민주주의 운동은 그 시대적 한계에 봉착하고 말았다. 소비에트와 동구권의 몰락과 더불어 자본주의로의 세계 질서 재편과 더불어 남한에서는 독재정권의 붕괴와 문민정부의 수립으로 결국 지난 80년대에 수많은 사회변혁을 지향하던 이들이 이것의 해답을 올바로 찾지 못하고 사회개량 운동 진영으로 전이하거나 개혁의 환상을 좇아 김영삼 정권에 투항하는 것이 오늘날의 생생한 현실이다. 변혁은 이들에게 있어서 민주주의와 하나의 상치된 개념으로, 변혁은 하나의 관념체계로서 전락한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사회변혁운동은 어떤 의미를 가지며 현재의 변혁운동 진영은 무엇을 발하려하고 있는가? 우선 변혁이라는 개념부터 명확히 하자. 정의를 내려보면 "아주 일반적인 의미에서 혹은 넓은 의미에서 인간의 행위에 의해 그리고 사회적인 범죄들의 작용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보다 높은 사회발전 단계로의 질적인 이행을 못하게 인간의 사회적 삶에 근본적인 의미를 지니는 진보적인 방향으로의 모든 질적 변형"(철학대사전, 동녘)이다. 그렇다면 변혁 운동은 인간에 기초하여 사회구조적, 체제적인 모순에 접근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사회구성원의 동의를 얻어내어 한단계 높은 사회질서로의 재편과 이행을 준비하고 도모하는 운동인 것이다. 이러한 변혁 운동은 그 시대와 역사의 모순을 한몸에 받고 있는 계급이 사회변혁의 주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 역사의 주체는 그 자신의 소외와 모순을 자본주의라는 시장경제로부터 인식한 바로 노동자 계급이며 절대 다수의 이해를 반영한다.

세계 자본주의 모순

세계 자본주의는 이제 '블럭화'와 '국제화'라는 전혀 상반된 개념을 가지고 자신의 모순을 현상하고 있다. (그사이 어정쩡한 모습으로도 그 대열에 끼기 위해 가진 노력은 다하는 남한의 김영삼 정권이었다.)세계 자본주의 질서는 제1차 공황이후 사상 최악의 실업을 양산하고 있으며 세계 각 열강들은 앞으로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폭적인 인원삭감을 예고하고 있다. 각 열강들의 경제위기는 속속 사회복지비를 대폭 삭감하고 있으며 우르과이라운드(UR), 그린라운드(GR), 블루라운드(BR) 등등을 통하여 생산경쟁력이 뒤지는 제3국에 대한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들을 치고있는 것이다. 그와 더불어 현지한 모순을 드러내는 것은 바로 미국자본주의이다. 엄청난 무역적자를 회복하기 위해 지역경제블럭화(NAFTA)와 슈퍼 301조의 발동 등은 무역의 국제화를 외치며 우르과이 라운드를 성사시켰던 것과 대조들이 튼다. 이러한 총체적 자본주의 경제의 위기의 돌파국면은 결국 프랑스에서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기 시작했다. 발라뒤르의 경제 5개년계획은 독점재벌들의 세금감면과 21개의 국영기업의 사유화, 공무원 일자리의 축소등을 골자로 하는데 이것은 노골적인 사회복지 기금의 축소와 노동조합 대표권에 대한 제한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것은 즉각적인 연대 파업투쟁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2년 동안 5천개의 일자리를 잃어버린 국영기업에서 프랑스에서는 4천명의 노동자가 활주로를 차단하고 파업을 단행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최저임금법'-어린 미숙련 노동자에게 대한 임금삭감과 최저임금의 하향을 유도하는 법-에 맞서 프랑스 전국의 25만여 명의 학생들이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결국 노동부장관은 이 법안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렇듯 자본주의의 위기는 현실화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한 세계 민중들의 삶은 가중되는 물가인상과 생활고(生活苦), 고용불안에 직면해 있다. 변혁운동의 실체는 바로 이러한 사회체제적 모순의 현장에 존재하는 것이다.

남한 사회의 상황 역시 이러한 국제 정세속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문민정부', '개혁경권'이라는 화려한 미사여구 아래 김영삼 정권이 출범한지도 어언 2년째를 맞고 있다. 깨끗한 정치를 표방하며 과거의 기득권 세력들을 숙청하면서 그는 문민정부의 살체는 이러한 것이라고 언론과 매스컴을 통하여 선전하고 민주와 개혁을 주장하며 이제는 당당히 세계화, 국제화로 나가야 할 때라고 구가경쟁력 강화논리를 강하게 유포시켜 나가고 있다. 더불어 한편으로는 고통분담론, 신경제정책들을 제시하며 노동자와 그들 가족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맬 것을 강하게 되뇌이고 있다. 이러한 국제화와 세계화의 여파는 수입개방으로 이어졌다. 대통령의 자리를 걸고 쌀수입만은 막겠다던 김영삼대통령의 공언은 거짓말로 드러나면서 쌀수입문제가 현실화 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수입농산물로 생존권마저 위협당하고 있는 농민들에게는 그덕분에 독점재벌의 전자제품을 훨씬 더 외국에 잘 팔게 되었다며 위로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얼마되지 않는 자작농들은 자신들의 토지에서 분리되어 더욱더 심각하게 대기업농의 농업노동자로 혹은 도시로 유입될 것이 뻔하다. 빵을 부풀리기위해서는 어쩔수 없다는 케케묵은 논리가 다시금 등장하게 되었다. 수입개방은 이제 농민의 일만이 아니다. 금융시장개방, 서비스시장개방, 교육시장개방 등을 총출히 앞두고 김영삼 정권의 '세계화' '국제화' 불장난은 화이트칼러의 목전에서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현실

그 김영삼정권의 이 한차례 멋진 해프닝은 결국 자신의 본질을 너무나 또렷하게 그가 숙청했던 과거의 이들처럼 또한 노동운동에 대한 폭력으로 데뷰무대에 나섰다. 노사분규년을 만들겠다는 그의 강한 의지의 표명은 통등이가 약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듯 싶다. 물가는 2개월째 한국은행 지표로 3.3%가 인상되었고, 실질적인 장바구니 물가는 지금까지 30%이상이 올랐는데 올해 임금인상을 한자리수 인상, 사회참의라는 미명을 앞세워 각 단위 노동조합의 노동권족과 결합하고 있는 노총지도부의 경총과 5%임금협잡에 이르고 있으며, 쌍용,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위원장의 구속수감과 동산의료원에 대한 과업 손해배상 판결, 국가보안법과 각종의 노동악법으로 경기남부지역에만 개방은 이제 농민의 일만이 아니다. 금융시장개방, 서비스시장개방, 교육시장개방 등을 총출히 앞두고 김영삼 정권의 '세계화' '국제화' 불장난은 화이트칼러의 목전에서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현실

그 김영삼정권의 이 한차례 멋진 해프닝은 결국 자신의 본질을 너무나 또렷하게 그가 숙청했던 과거의 이들처럼 또한 노동운동에 대한 폭력으로 데뷰무대에 나섰다. 노사분규년을 만들겠다는 그의 강한 의지의 표명은 통등이가 약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듯 싶다. 물가는 2개월째 한국은행 지표로 3.3%가 인상되었고, 실질적인 장바구니 물가는 지금까지 30%이상이 올랐는데 올해 임금인상을 한자리수 인상, 사회참의라는 미명을 앞세워 각 단위 노동조합의 노동권족과 결합하고 있는 노총지도부의 경총과 5%임금협잡에 이르고 있으며, 쌍용,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위원장의 구속수감과 동산의료원에 대한 과업 손해배상 판결, 국가보안법과 각종의 노동악법으로 경기남부지역에만 28명의 노동자가 연행되고 13명의 노동자가 구속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업무조사권리라는 미명하에 노동부가 직접 노동조합의 업무를 감찰하는 업무조사권도 발동해 놓고 있다. 이러한 노동운동에 대한 총체적인 동등이 탄압은 시위현장과 파업현장에서 더욱더 노골화 되고 있다. 특히 전국해고, 수배 노동자 복직 투쟁위원회의 집회에서, 산재로 산재보상과 재취업보장을 요구하는 산재 자관기라고 불리우는 원진레이온의 노동자 집회에서도 여전히 약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렇다면 김영삼 정권은 대다수의 농민과 노동자의 이해를 저버리고 과연 누구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가? 이것은 책이 아닌 현실에서 검증된다. 국제자본의 이해와는 다소 마찰은 있지만 철저히 국내독점자본의 이해를 맞추어 나가고 있다. 독점자본의 이윤확대가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고 있다고 김영삼 정권은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국가주도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러한 독점자본의 이윤확대를 위해서는 그것에 저항하는 이들에게 폭력 조차 합법적으로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김영삼 정권은 개혁도덕정치라고 명명했다. 그리고 개혁은 끊임없이 진행될 것이라 선언한다. 김영삼 정권의 개혁정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독점자본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일이다. 다시말하면 독점자본의 성장을 방해하는 어떠한 장애물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자본주의의 침예한 세계적 모순은 남한에서도 노골화 되고 있다. 무한경쟁이라는 미명아래 대량의 간축 기업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지며 고용불안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게다가 미래의 주력사업에 대한 하이테크산업과 환경상품의 경쟁으로 상대적 열세에 속해있는 후진국들과 제3세계국가들은 무엇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미 세계 열강들은 전쟁을 선포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날의 남한의 사회변혁운동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자본과 노동의 대립은 더욱더 선명해지고 있다. 새로운 관념의 대안을 찾기 위한 정책와 세상은 변했다는 꿈속에 몽상이 과학을 앗아가고 젊은 세대들을 신세대라는 유령앞에 제물로 바치게 하였다. 물론 세상은 변했다.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변혁의 대안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 변혁의 대안은 힘이다. 변혁운동은 지금의 민중의 분노를 올바로 이끌어 나가야 하며 민중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것이다. 다시 변혁운동은 원칙을 가지고 민중들속으로 대중들속으로 스며들어 분노를 하나로 모아내어야 한다. 이것으로 자본의 질서에 대한 총체적인 저항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자본과 노동의 대립을 더욱더 뚜렷하게 할 것이며 과학을 다시 찾고 검증하는 과정이 될 것이며 전체 변혁운동을 강력하게 할 것이다. 변혁은 민중들의 지지에 의한 힘에 기초한다고 했다. 하지만 무엇으로 이러한 힘을 일어낼 것인가? 그러한 물음에 대답하지 못한다면 역시 동어반복일 수 밖에 없다. 현실은 이제 벼랑끝으로 변혁운동진영을 몰아내고 있다. 하지만 이제 변혁운동진영은 더이상 양보할 수 없는 자리에 서 있다. 여기에 생존권을 위해 위기에 저항하는 노동자-농민들이 투쟁하고 있다. 변혁운동진영은 이들의 투쟁의 끈을 잡아야 한다. 다시 공세적인 투쟁을 이들과 함께 전개해야 한다. 다시금 자본의 질서에 총체적으로 저항하며 김영삼의 잿빛허상을 몰리쳐야 한다. 변혁운동의 미래는 여기에 달려있다.

당당히 맞서야 할 삶

미래의 노동자가 될 청년학생들은 이것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님을 각인해야 한다. 고학력 실업의 문제는 오늘내일 언급되던 바가 아니다. 바로 직접적인 위기와 생존의 문제가 바로 우리 앞에 닥쳐 있는 것이다. 프랑스의 학생운동은 그것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 80년대 이후 학생운동은 침체의 길을 걷고 있다. 학생운동권은 이제는 학생들의 성가신 존재가 되어버렸다. 새로운 변혁의 호름을 준비하고 만들어 가야 한다. 강력한 민중연대 투쟁과 더불어 학우들의 건강한 삶을 총체적으로 책임지는 변혁적 학생운동이 올바르게 학원내에서 자리잡아야 한다. 앞으로 우리가 진출하게 될 사회에 대한 책인은 바로 우리에게 부여되기 때문이다. 인간들의 공동체가 사회라는 틀로 묶여있는 한 우리는 결코 그 틀을 외면할 수 없다. 이제는 공동체 속에서의 학습과 토론, 그리고 자신의 다양한 삶의 욕구와 자기실현을 공동체속에서 일구어 내야 한다. 그리고 평생을 준비하는 자신의 삶과 인생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회피할 수 없는 사회적 모순을 인식하고 실천으로 현실의 모순을 헤쳐나가고 부딪혀 나가야만 한다. 자유로운 인간들의 공동체를 향한 그날까지 말이다. 변혁은 결코 쉽을 기다리지 않는다.

장 세 영
〈사회대 행정·4〉

대기업만을 위한 개혁정책

올바른 변혁위해 공동체 의식 선행돼야

강단시론

한 한 수
〈사회대교수·경영학〉

우리는 요즘 새로운 용어의 홍수속에서 사는 것 같다. 세계화, 국제화, 개방화, 신경제수진과 같은 말을 자주 사용하면서 교육계에서는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대학에도 개혁의 바람이 서서히 불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각대학이 개혁의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또한 모일간지에서도 시리즈로 '대학교육 이대로 좋은가'를 연재하면서 개혁을 부르짖고 있어 대학인의 한 사람으로 관심있게 읽어보고 수긍하기도 했고 반대의견을 갖기도 했다.

개혁으로 질주하는 대학

우리대학도 서울캠퍼스 본관건물에 '다시 생각하여 새삼게 뛰자. 거센 개방물결 휘몰아친다'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대학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한다.

진작부터 수원캠퍼스 1호관에도 '21세기를 위해 우리는 부엉을 해야 하나'라는 글귀가 건물벽에 써있어 누구나 얼른 볼 수 있다. 이 글귀는 국제화, 개방화를 위해서도 선도적 역할을 해온 대학의 면모라고 생각한다.

교육부에서는 국제화 내지는 세계화를 위해서는 대학의 학기제를 3학기제나, 조기졸업제 채택이나 하면서 한참 떠들썩하더니 이제는 잠잠(?)하다. 이러한 계획을 실행하려면 적어도 백년을 내다보면서 연구와 실험을 거듭해서 하나의 모형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본다. 교육은 百年之大計라는 말이 교육부장관이 바뀔때마다 거론이 되곤 하는데 진정 교육을 사랑하고 하는 말인지 의심이 든다.

80년대초 실험대학이라고 해서 1학년에서 학부제 운영을 통하여 자기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해 한두해 실시하더니 그것도 여러 모순 때문에 중단하였다. 그렇다면 다시 원상복귀하던지 아니면 좀더 보완을 하던지 해야 하는데 어정쩡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게 사실이다.

실험대학의 여파

그 여파로 대학생들은 실험대학에서 140학점만 이수하면 졸업을 하게 된지 몇년 지금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전공 필수이외의 어떤 과목을 이수하건 간에 졸업이 가능했다. 이건 전문교양인을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전문인을 양성하는 것인지 모르게끔 되어버린 상황이다.

교육의 국제화, 세계화가 경제회복과 같이 결과가 금방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대학인들이 교육개혁을 해야 한다면 면학분위기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실험대학운영의 잔재로 대학생들이 너무 높고 방학이 길다고 한다. 졸업학점이 140학점이고 1학기 16주만 강의하니 방학이 길어지고 정말 너무 느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몇년전 섬포지엄에 참석했던 일본인 교교과과정의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퍽 다행스러운 일이다. 교과과정만 개편하면 된다는 식보다는 미래지향적인 대학의 비전을 제시하는 대학운영이필요하다고본다.

대학엔 철학이 있어야 한다. 미래지향적인 대학이 되기위해 모두 참여해 일류로 발돋움할 수 있는 대학으로 만들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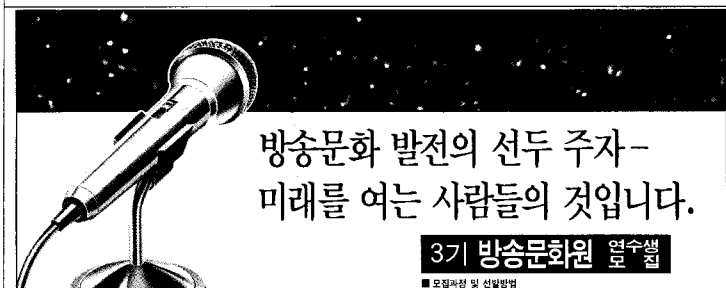
대학은 학생들이 공부하게끔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모든 교수가 매주 과제물을 부과하고 그것을 평가하며 철저한 연구와 강의가 있어야 한다. 어느 대학에서는 교수의 책인시간을 9시간이내로 제한하고 타대학 출장을 억제하는 대학도 있다. 그래야만 학생지도와 연구에 진념할 수 있을 것이다.

易經의 "군자는 학습을 통해 지식을 축적하고, 문답을 통해 시비곡직을 가란다(君子, 學以聚地, 問以聚之)"는 구절에서 學자와 問자를 따서 學問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 학문의 의미는 앎, 지식, 지혜를 내포하고 있는 동시에 새로운 지식의 계발과 사회에의 기여능 실천적 면이 강하다 하겠다.

우리는 한 전공분야를 택하여 그 속에 담겨진 무궁한 진리를 탐구하는 것을 최고의 생활이념으로 삼아 그 무엇에도 속박됨이 없이 상아탑속에서 학구생활을 해야 하는 것을 천직으로 삼아야함은 만할나위 없다.

사람대학은 선입견적이 있고 창학이념이 있다. 따라서 대학은 고유성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대학에는 교시가 있고 교훈이 있으며 경희정신이 있다. 창의적인 노력, 진취적인 기상, 건설적인 협동의 기치아래 우리대학인 모두가 건학이념으로 함께 뭉치고 매진해야 되리라 본다.

대학개혁은 개인으로 부터



방송문화 발전의 선두 주자-
미래를 여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3기 방송문화원 연수생 모집

■ 모집과정 및 선발방법

모집과정	양성직종	응시자격	선발방법	교육기간(6개월)
방송진행자	아나운서, MC, DJ, 리포터	전문대졸(졸업예정)	실기테스트 및 면접	저녁반 (주 5일)
성 우	성우	고졸이상		오후반 (주 5일)
방송작가	구성작가	제한없음	작품심사	저녁반 (주 1회)
	드라마작가			오후·저녁반 (주 1회)
	연수생 (도준리)	6개월과정 수료자, 그와 동등한 자	작품심사	저녁반 (주 1회)

■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5월 10일(화)~5월 16일(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접수 : 5월 11일(수)~5월 17일(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장소 : 기독교방송 종로문화센터(기독교회관 10층)

■ 제출서류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소정 양식) • 반명함판 사진 2매

■ 전형일시
- 실 우 : 5월 20일(금) 오전 10시부터 실기테스트 및 면접
- 진 행 자 : 5월 21일(토) 오전 10시부터 실기테스트 및 면접
- 작가과정 : 작품출품일 5월 19일(목) 오후 6시까지
  ★작품제출 : 수필,콩트,자기소개서(200자 원고지 10매 이내)
  ★면 접 반 : 콩트(200자 원고지 10매 내외)
  ※ 2기 수료자 작품제출 생략

문의전화 : 741-5850~5

CBS 기독교방송 방송문화원 (종로문화센터)

방송요원의 출발-
단 1분의 시간이라도 헛되이 보내지 않는
소중한 선택이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힘찬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프랑스語

프랑스語와 프랑스文化의 만남은 알리앙스 프랑세즈에서

alliance Française
VOTRE VISA POUR LA FRANCE

BEF Ⅰ Ⅱ, MA Ⅰ Ⅱ, NSF Ⅰ Ⅱ Ⅲ, AP, ARC, ESP Ⅰ Ⅱ, 자유 회화반, 시사 뉴스반, 시사 토론반, 독해작문반, 상업 무역 불어 및 비서직 학위 준비반, 비디오 시청각반, DELF 준비반, etc.

'94 알리앙스 주관 시험
- DELF DALF 시험 실시

프랑스 정부 교육성 주관하의 프랑스어 지식 및 구사 능력 학위증 발급
- 상업 무역 불어 및 비서직 학위증

프랑스 상공 회의소 주관 학위증 수여

유 학 상 담
- études en France
- voyages
- stages de langue

이제는 알리앙스 에서 직접하세요.

'94 여름방학 언어연수

seoul-centre ☎ 755-4972, 5702 〈중구〉
nam-seoul ☎ 555-1125, 1126 〈강남〉

프랑스語와 프랑스文化의 國際學校
(세계 100여국에 1000여개의 알리앙스)

Alliance Française

제4회
대학(원)생 논문현상공모

생활속의 꿈을 키우는 저희 국민은행은 고객에게 보다 나은 금융편의를 제공하고,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처하기 위하여 대학(원)생 여러분의 우수한 논문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제기와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논제 : 다음 중 택일
- 금융시장 개방에따른 우리나라 은행의 경쟁력 제고방안
- 금융자유화 시대의 금융상품 개발 및 판매전략
- 교육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발전방안
- 금융환경변화에 대응한 은행의 리스크 관리방안

2 응모요령
- 응모자격 : 전국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원고매수 : WORD PROCESSOR로 A4용지 30매 내외 200자원고지 100매내외, A4용지 5매내외의 요약문 별도 첨부
- 응모마감 : 1994. 8. 31
- 당선작발표 : 1994. 10월말
  개별 통보 및 경제신문 게재.
- 1인당 응모편수 : 2편이상 중복응모 제한없음.
- 제 출 처 : 우편번호 100-703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9-1
  국민은행 종합기획부 현상공모담당자 앞

3 상금 및 시상
- 최우수상 : 1편 : 300만원과 상패
- 우 수 상 : 2편 : 각 150만원과 상패
- 가 작 : 5편 : 각 60만원과 상패
- 응모자 전원에게 기념품 증정
- 시상일자와 장소는 추후 개별 통보함.

4 특 전
- 최우수상 및 우수상 수상자가 입행 희망시 위한 경우 수습행 검토하여 결격 없을시 채용시 우대함.

5 유의사항
- 우수작품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명기하고 제하단에서 1부 첨부.
- 미공표 논문은 반환하지 않음.
- 당선자의 저작권은 당행 소유임.
- 응모작의 논문 또는 요약문은 제목이 같을 경우에 제외하며, 동일 당선자로 확정된 후 원의 사정이 확인될 때에는 당선 취소 조치함.
- 기타 사항은 현상공모담당자에게 문의 바람.
  ☎ 517-2598, 2602.

생활속의 꿈을 키우는 국민은행